

2020년 8월 30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축산경영과 과 장 박홍식(044-201-2331), 사무관 도재규(2346) / 제공일: 8월 30일(총 5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폭우로 잃어버린 소, 축산물이력제로 되찾아 [연합뉴스 8.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-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08년 소부터 시작하여 돼지, 닭 등으로 단계적으로 축산물이력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음
 - 축산물이력제에서는 소, 돼지, 닭 등 축산물에 대해 농장주와 사육지, 도축 및 등급판정 결과, 유통경로 등의 정보를 축산물 이력제 앱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,
 - 이번에 폭우로 잃어버린 소는 귀표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통해 농장주와 사육지 정보를 확인하여 주인을 찾은 것임
- 축산물이력제는 소, 돼지, 닭 등의 이력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,
 - 소·돼지 등 축산물의 품질향상, 사육·출하 정보를 이용한 축산물 관측, 가축 방역 등 축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
- 8월 29일자 연합뉴스 <폭우 때 떠내려간 소 20여일 만에 발견... “돌아올 줄이야”>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

언론 보도내용

- 최근 집중호우 때 떠내려간 소가 20여일 만에 무사히 발견
 - 경남 합천군 울곡면 한 물가에 소 한 마리가 고립되어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하고 축협에 신고
 - 축협에서 귀에 붙은 표식(귀표에 표시된 소 이력번호)을 확인하여 원래 주인에게 소를 인계

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가축과 축산물의 생산·유통 이력정보를 관리하는 축산물이력제*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* 축산물이력제 :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·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·관리하고, 이력정보 관리를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

- 축산물이력제는 소, 돼지, 닭 등 축산물에 대해 농장주 및 사육지, 도축 및 등급판정 결과, 유통경로 등의 정보를 축산물이력제 누리집(www.mtrace.go.kr)과 ‘축산물이력제’ 앱을 통해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이번 집중호우 시에 폭우로 인해 떠내려간 소들이 농장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축산물이력제가 잘 정착되어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.

- 소가 태어나게 되면 이력번호(12자리)가 표시된 귀표를 붙여 개체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,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이나 앱에서 귀표에 표시된 소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농장주와 사육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, 도축되어 유통된 경우에는 도축 및 등급 판정 정보와 유통경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 이번 폭우로 잃어버린 소, 귀표 확인으로 되찾은 주요 사례 >

- ◇ (9일) 전북 남원시 송동면 소재 축사에서 떠내려간 젖소 한 마리를 60km 떨어진 전남 광양 다압면 섬진강 둔치에서 발견
- ◇ (10일)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침수된 축사를 피해 지붕 위로 대피한 소 다섯마리 발견(11일 구조된 암소에서 송아지 두마리 출산), 동일 농가의 소 2마리가 36km 떨어진 경남 하동에서 발견
- ◇ (11일) 합천 율곡면 소재 축사에서 떠내려간 한우 한 마리가 80km 떨어진 밀양시 하남읍 낙동강 둔치에서 발견
- ◇ (12일) 전남 구례군 구례읍 소재 축산단지에서 급류에 휩쓸려 섬진강을 따라 55km 떠내려온 암소 한 마리를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바닷가 무인도에서 발견
- ◇ (18일) 경남 합천군 율곡면 소재 축사에서 떠내려간 소 한마리를 90km 떨어진 경남 창원시 대산면 낙동강 둔치에서 10여일 만에 발견

- 또한, 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반 제공, 축산물 관측 및 수급관리, 유통 등 축산 분야에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.

- 소 사육 농가에서는 송아지를 구매하기 위해 사육 월령과 출생지를 확인하거나, 이력정보로 부모 개체를 확인하여 인공수정을 하는 등 소의 품질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,
 - 축산물이력제를 통해 제공되는 월별 소·돼지 사육두수와 출하두수 정보는 소·돼지 관측 등 수급 전망과 도축, 등급판정 및 유통경로 등을 통한 유통정보 제공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.
 - 또한, 축산물이력제로 확인이 가능한 가축의 이동정보와 브루셀라 및 결핵병 검사 결과,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는 가축 방역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
- 농식품부는 앞으로도, 소·돼지 등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, 수급 등 축산물 이력제를 활용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축산물 관측 및 유통, 가축방역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.

붙임

축산물 이력제 개요

- (정의) 가축의 출생·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·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·관리함으로써,
 -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
- (법령)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
- (대상) 소·돼지 사육농가, 도축업자, 축산물유통업자 등
 - 국내산 소·쇠고기('08.12월~), 수입산 쇠고기('10.12월~), 국내산 돼지·돼지고기('14.12월~), 수입산 돼지고기('18.12월~), 국내산 닭·오리·계란('20.1월~)
 - * 유통단계 단속: 국내산 닭·오리는 '20년 7.1일부터, 국내산 계란은 '21.1월부터 시행
- (내용)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각 단계별로 신고·기록·관리하고 개체 또는 축산물(포장 최소단위)에 표시

